

영화 '나를 찾아줘', 실종아동·부모의 외침이 주는 여운

장르 영화지만 현실 벗어나는 선택 無
배우 이영애 14년만에 스크린 복귀작

고통과 희망이 무한하게 반복되는 삶. 인생은 누구에게나 그럴 테지만, 아이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실종아동 부모들은 남들보다 몇 배는 더한 진폭으로 고통과 희망을 오르내리려할 것이다. '나를 찾아줘'는 실종과 아동 학대라는 무거운 소재를 스릴러 장르 속에 비교적 짜임새 있게 잘 담아낸 작품이다.

지난 19일 언론배급사사회를 통해 공개된 '나를 찾아줘' (김승우 감독)는 실종을 소재로 한 스릴러 영화다. 화려한 장치들을 이용하기 보다는 자녀를 잃은 부모의 깊은 슬픔과 사회의 무관심 등 정서적인 주제를 표현하는 데 전착했다. 그 결과 실종 아동과 그 부모들이 겪는 고통이 생생하게

전달된다.

6년 전 아들 윤수를 잃어버린 정연(이영애 분)과 명국(박해준 분) 부부는 여전히 아이가 없는 일상에 적응하지 못한 채 윤수를 찾아헤맨다. 명국은 직장을 그만두고 신고 전화가 들어올 때마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아들을 찾는다. 응급실 간호사 정연은 여전히 잃어버린 아이가 돌아올 것만 같은 희망 하나로 버겁게 하루하루를 버틴다.

그러던 중 정연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누군가로부터 바닷가 마을의 만선 낚시터에 있는 민수라는 아이를 찾아가 보라는 연락을 받는다. 5000만원의 현상금을 보낸 후 낚시터를 찾은 정연은 동네 사람들 통해 민수의 행방을 알아

내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모두들 민수를 알지 못한다며 시치미를 떤다. 동네 경찰인 흥경장(유재명 분)까지도 정연을 돌려보내는 데에만 급급하다.

한편 영화는 낚시터에서 어른들의 학대 속에 학교에도 가지 못한 채 일을 도우며 힘겹게 살아가는 민수의 삶을 보여준다. 민수와 지호, 두 아이에게 일을 시키는 어른들 중 누구도 부모는 없다. 섬마을의 김씨 할머니 집에서 왔다는 민수의 얼굴은 어쩐지 윤수와 닮아있는 것 같다. 이를 유심히 지켜보던 누군가가 휴대폰을 들어 정연에게 전화를 한다.

'나를 찾아줘'는 장르 영화지만 현실의 범위를 벗어나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잔혹한 복수를 보여준다든지, 반전에 반전이 거듭된다든지 하지는 않는다. 아이를 잃은 한 평범한 엄마가 이기적이거나 무관심으로 가득한 사람들로 부터 방치된 아이를 구하기 위해 벌이는 고군분

투를 짜임새 있는 구조 속에 담담한 시선으로 그려낼 뿐이다.

이런 담담한 시선 속에 돋보이는 것은 캐릭터들이다. 주인공으로서 영화 전체의 분위기를 끌어가는 이영애의 존재감이 상당하다. 고통을 삼키며 세월을 견뎌온 사람의 아픔을 절제된 연기 속에 담았다. 유재명 역시 보편적인 상식을 갖춘 사람이면서 자신의 이익이 관계된 일 앞에서는 돌변하는 이중적인 흥경장을 실감나게 표현했다.

주·조연 배우들의 연기도 훌륭하다. 현대인의 이기심과 무관심을 뒤섞어 놓은 듯한 몇몇 캐릭터들은 보는 이들의 공분을 자아낸다. 영화 속 "우리들을 찾아달라"는 아이들의 마지막 한마디 깊은 여운을 남긴다.

이영애의 스크린 복귀작이다. 결혼과 육아 및 TV드라마 출연에 집중했던 이영애는 14년만에 스크린에 돌아왔다.



뉴스

'유산술+아침마당' 시너지... '놀면 뭐하니' 자체 최고 시청률

유재석 생방송 데뷔 무대 7.8% 기록



유산술 효과로 '놀면 뭐하니?'가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시청률 조사회사 님스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3일 방송된 MBC '놀면 뭐하니?-뽕 포 유'는 전국 기준 1부 5.3%, 2부 7.8%를 기록했다. 프로그램 자체 최고 시청률이다. 1부 6.1%, 2부 7.9%로 근소한 차이로 KBS 2TV '별후의 명곡'

을 바짝 추격했다.

이날 방송에서 유산술(유재석 분)은 KBS '아침마당'을 완벽하게 접수, 생방송 데뷔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특히 그의 인기 방송사간의 경계를 허물고 어머니들부터 어린이까지 전세대의 취향을 저격, 방송과 세대의 대통합을 이루며 '유산술 신드롬'에 불을

지켰다.

앞서 유산술은 지난 18일 '아침마당' 생방송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생방송 당일 아침 KBS 촬영장을 찾은 유산술은 불과 이틀 전에 '아침마당' 출연 소식을 다른 방송 관계자를 통해 전해 들었다며 자신도 모르는 생방송 스케줄이 잡힌 것에 대해 멘붕에 빠진 속내를 드러냈다.

유산술은 생방송을 앞두고 초조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리허설에선 '합정역 5번 출구'의 첫 소절을 틀리는 실수를 하며 극도로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명불허전' 코너에서는 유산술을 비롯해 연하남쓰, 이용주, 요요미 등 대세 트로트 신인들이 불꽃 무대 경쟁을 펼쳤다.

파이팅 넘치는 연하남쓰가 유산술을 향한 경쟁심을 드러내자 유산술 역시 인경을 벗고 맨눈의 눈빛 카리스마를 어필하며 진귀한 볼거리를 선사, 제작진은 물론 MC들의 웃음보까지 터트렸다.

"잘못된 것 알려야"... 정지영 감독, 독과점 반대 기자회견 참석

"겨울왕국2 좋은 영화...오래, 길게 보면 안되나"



정지영 감독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면서 스크린 독과점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유를 밝혔다.

정지영 감독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겨울왕국2' 개봉에 따른 스크린 독과점을 우려하는 '영화다양성 확보와 독과점 해소를 위한 영화인대책위원회' (이하 반독과점영대위)의 긴급 기자회견에서 "블랙머니' 제작진이 여기에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왜 그러냐고 했더니 비난하는 댓글이 엄청나게 올라온다고 했다. 역풍을 맞는다는 것이다"라고 운을 뗐다.

정 감독은 "아제 날짜로 극장 좌석수가 90만석에서 30만석으로 줄었다. 스코어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줄었다. 갑자기 하루만에 이런 역풍을 호소하셨는데 나가지 말라, 역풍 더 맞는다 하더라"면서 "모든 관객들이 손님이

많이 드는 영화에 극장문을 여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것이 불공정한 시장이라는 걸 모르니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걸 알려주는 자리가 있었으면 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했다.

반독과점영대위는 그간 소수의 대기업 영화관이 국내 스크린의 92%, 입장료 수익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를 비판하며 영화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해왔다. 정지영 감독은 반독과점영대위의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이들이 개정을 요구하는 영화법은 △대기업의 배급업·영화상영업 겸업 반대 △공평한 상영권 배정 △복합 상영관에서 동일한 영화의 일정 비율 이상 상영 금지 △복합 상영관의 예술·독립영화 연간 상영일수 지정 등의 규제·지원 정책을 포함한다.

정 감독은 "현재 법 제도 안에서 불공정 시장이 계속되는데 마냥 기업만 비판할 수는 없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들은 최대 이익을 추구하면서 법만 피하면 된다"며 "국회가 해야 한다. 오래 전에 개정법을 올려 놓고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영화정책 담당자가 해야 한다. 영화진흥위원회, 그들이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겨울왕국2'는 좋은 영화다 어린이와 학부모가 좋아한다. 그 좋은 영화를 오래, 길게 보면 안되느냐. 한 번에 (많은 관객을) 잡고 넘어가야 하나? 다른 영화에 피해를 안 주면서 공정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며 현재의 상황을 비판했다.

MEGABOX 광주첨단점

1관	겨울왕국2
2관	블랙머니
3관	신의 한 수:귀수편
4관	겨울왕국2
5관	신의 한 수:귀수편
	터미네이터:다크 페이트
6관	82년생 김지영, 얼굴없는 보스
7관	겨울왕국2
8관	블랙머니
9관	겨울왕국2

문의전화 1544-007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엠코로 35(쌍암동)

CGV* 광주하남점

1관	겨울왕국2, 블랙머니, 좀비랜드-더블 탭
2관	겨울왕국2, 좀비랜드-더블 탭, 엔젤 해즈 폴른
3관	겨울왕국2
4관	겨울왕국2
5관	겨울왕국2, 블랙머니, 신의 한 수-귀수편
	82년생 김지영
6관	겨울왕국2, 82년생 김지영

문의전화 1544-1122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400번길 30 테라스 56 피크닉몰 2층